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동교회**

담임목사 이 동 관

주일에배

1부 08:00
2부 09:30
3부 11:30
청년부 13:30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

- 찬 양 다함께
* 입례송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교독문 29(시편65)
찬 송 204장
기 도 박상호 장로 | 1·2·3부
김선호 회계 | 청년부
성경봉독 렘 1:4-10(구1049) | 1·2·3부
창 12:1-3(구14) | 청년부
찬 양 평안을 네게 주노라 - 할렐루야 찬양대 | 1부
나 기억합니다 - 뽀얏찬양대 | 2부
축복하노라 - 시온찬양대 | 3부
헌 금 200장(헌금송) | 1·2·3부
봉헌기도 인도자
설 교 말씀이 이끄는 삶-이동관 목사 | 1·2·3부
아브라함: 자력없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김종명 목사 | 청년부
기 도 설교자
* 찬 송 546장 주님 약속 하신 말씀 위에 서 | 1·2·3부
하나님의 부르심 | 청년부
* 축 도 설교자
교회소식 인도자
* 폐 회 송 다함께

Daedong
Presbyterian
Church

since 1948.1.9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다음주기도

- * 최기동 장로 | 1·2·3부
* 정해원 리더 | 청년부

주일찬양예배 14:30 | 인도 조성제 장로(교육부부장)

[주일학교 교사헌신예배]

목 도 다함께
찬 송 211장
기 도 이강민 장립집사(교육부총무)
성경봉독 행 9:10-19(신202)
/ 안상현 장립집사(교육부서기)
찬 양 사랑은 / 시온찬양대
설 교 위대한 사람을 세우는 헌신
/ 주영범 목사

특별찬송 교육위원
교회소식 이동관 목사
찬 송 212장
축 도 이동관 목사

다음주 기도 | 이윤하 장립집사

다음주 특송 | 2남전도회

수요예배 19:00 | 인도 조태화 목사

목 도 다같이
찬 송 357장
기 도 노정금 권사
성경봉독 느 4:1-14(구731)
찬 양 예수님 내게 주소서/ 마리아찬양대
설 교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 조태화 목사
찬 송 349장
주 기도 다같이

다음주 기도 | 홍경숙 집사

성경통독 안내

19일(주)	20일(월)	21일(화)	22일(수)
4권 2장	렘31-35	렘36-40	렘41-45
23일(목)	24일(금)	25일(토)	
렘46-50	렘51-52	애1-5	



말씀영상



오디오성경

화요종보기도회

20:00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회

금요하늘문기도회

20:00 | 인도 이동관 목사

주일학교 교사기도회

새벽기도회

05:00 | 인도

월-토:교역자
주 일:담임목사

7/20 (월)	7/21 (화)	7/22 (수)	7/23 (목)	7/24 (금)	7/25 (토)	7/26 (주일)
사3	사5	사5	사6	사7	사8	사9

다음주 기도 | 강부식 장립집사

2026년 7월의 행사계획

- 맥주감사주일(5일/주일)
-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7월~8월 중)
- 주일학교 교사헌신예배(19일/주일)



봉사위원

7월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안 내 위 원	최기동 백현우 김한숙 이민영	박대익 김종철 이영숙 정필환
헌 금 위 원	김상열 이상만 서상일 오수택 임광수 천민주 홍성심 손명희 오은숙 송귀순 오기람	정원수 황인성 윤정웅 정지관 유대중 조한빈 심지현 이상희 김혜영B 한은정

남아공 정몽물 선교사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의 삶과 가정에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아공 이 땅에서도,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감사의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미국 풀만 한인교회 단기선교팀이 저희 역사지를 방문했습니다. 40여 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으로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항공권을 변경하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까이 화생과 한산을 감당해 주신 모든 팀원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격려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친 뒤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주저 없이 '캠프'를 꼽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간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선교 통계를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청소년 시절 수련하러 캠프를 통해 한산을 걸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은 캠프를 열어 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풀만교회를 통해 그 소망이 이루어져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자 삶의 영적 전환점이 될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은 방식이 저마다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는 기도회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어떤 아이는 소그룹 나눔 속에서 따뜻한 위로로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간증과 설교, 성경 파노라마와 같은 말씀 중심의 시간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선교팀이 한마음으로 페인트를 칠하며 묵묵히 땅을 세우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든 한 가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선교사가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기에 선교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캠프도 우리가 준비한 행사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셨고, 저마다 다른 통로를 통해 자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공동체 생활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름 없이 성가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프로그램의 성공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깊은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중학생 아이의 고백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역시 멈추지 않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뿌린 작은 눈물과 단기선교팀이 흘린 땀방울,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 기도와 맞물려 이 땅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때로는 저희를 통해, 때로는 단기선교팀을 통해,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모아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잠시 스쳐 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통

해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그 거대한 사랑의 행진에 가까이 한 걸음을 보태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를 버텨나 갑니다. 늘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강이 동역자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침터, '조이풀 도서관'

조이풀교회가 있는 니즈캠프 지역의 대부분의 집은 남아공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RDP, Reconstruction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해 지어진 주택입니다. 과거 이곳은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던 캠프였고, 민주화 이후 정부가 동일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대부분 약 13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방 두 개가 전부여서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매우 비좁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갈 곳조차 없어 좁은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늘 아이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근처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을 찾는 데만 몇 달이 걸렸지만, 감사하게도 집을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1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이풀 도서관'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방과후 공부방이자 침터입니다.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며 마음껏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서관이 세워지기까지, 교회 청소년들이 함께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단기선교팀은 베품 정성껏 페인트칠하여 낡은 공간을 환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새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넘쳐나는 데미에서 놀던 것이 안타까워서 시작했는데, 책이며 책상이며 책장 등을 구비하면 더 근사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의 삶을 세워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미세의 한국 방문

미세는 한국에서 진행된 2주간의 RTA 어린이사역자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미세에게 단순한 해외 경험 이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홀로 긴 여정을 감당해야 했고, 낯선 문화와 언어, 음식 속에서 생활해야 했지만, 훈련 기간 내내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모든 일정을 잘 감당했다는 피드백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훈련을 통해 미세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는 미세의 삶에 자신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미세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 있게 다가가고, 맡겨진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돕는 모습은 물론이고, 일상 속 작은 선행과 태도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담대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삶의 여러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의 변화는 개인의 성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모두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되었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신다'는 살아 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과 사랑이 미세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미세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내부에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 1. 전도회 월례회
 - 1남전도회 월례회: 시므온홀(교육관 304호)
 - 3남전도회 월례회: 오후 1:20/구.헤브론홀(교육관 603호)
 - 2여전도회 월례회: 3부 예배 후/ 예루살렘홀(교육관 702호)
- 2. 교육위원회: 오후 1:00/장립집사실(203호 베드로홀)

알림

- 1. 주일학교 교사헌신예배: 오늘 오후 찬양예배는 주일학교 교사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강사: 주영범 목사/ 은혜나무교회 담임)
- 2. 금요 하늘문 기도회: 이번 주 금요하늘문기도회는 주일학교 교사기도회로 모입니다.
- 3. 제이엘(Jesus Love)소년소녀합창단 4기 모집
 - 대상: 초등학교 1~5학년(10명이하) • 오디션 곡: 찬 563장
 - 오디션 일시 및 장소: 7월 26일(주일) 오전 11시/다윗홀(교육관 701호)
 - 문의 : 이은영집사(010-3814-3712)
- 4. 대구수성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주최 제26회 성경암송쓰기대회 및 제21회 울동경연대회(예고)
 - 일시: 8월 22일(토) 오후 1시 • 장소: 범어교회
 - 참가신청: 7월 26일(주일)까지 각 교육부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장학생 신청(예고): 2026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장학생 선발공고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서류를 8월 1일(토)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주일학교 여름 행사 안내
 - ※ 주일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큰 은혜가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서	주제	일정	장소	담당
영아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히12:2)	7월 19일(주일) 7월 26일(주일)	영아부실	박영혜 전도사
유치부		7월 19일(주일) 7월 25일(토)~26일(주일)	유치부실	강정은 전도사
유년부		7월 19일(주일) 7월 25일(토)~26일(주일)	유년부실	조효정 전도사
초등부		7월 19일(주일) 7월 25일(토)~26일(주일)	초등부실	김은성 전도사
중등부	하나님을 바라며 Rise up! (사40:31)	7월 22(수)~24일(금) 7월 22(수)~24일(금)	경북 청소년수련원	신윤자 전도사
고등부				김종명 목사
에바다 청년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 공략집ep(벤전 5:8)	8월 21(금)~22일(토)	영덕 조이풀빌리지	김종명 목사

기관동정

- 1. 장년부 방학(예고): 7월 26일(주일)부터 8월 16일(주일)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직원 동정

- 1. 휴가: 이장우 관리장로 7월 22일(수)~7월 24(금)

교우동정

- 1. 장례: (소망2) 서정옥 전입은퇴권사(최운석 장립집사의 모친, 최애순 서리집사의 시모)소천, 7월17일 장례.

다음 주 예고

- 1. 정기당회
- 2. 권사회 월례회
- 3. 7여전도회 월례회

* 본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공부 외에 외부성경공부는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림 뿔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는 책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히며 성경이 정확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무엇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지 궁금해 했다.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수 천 년 동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인도 사람들은 몇 마리의 커다란 코끼리들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다.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메기의 등 위에 지구가 올려져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신이 그의 어깨로 지구를 떠받치는 힘든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말씀한다(욥 26:7). 지구는 허공에 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지구가 허공 속에 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1500년대에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부하들은 맨 처음으로 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그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발견하기 훨씬 전에 성경에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사 40:22에서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라고 말한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둥근 지구 위에 있는 그의 보좌에 앉으시나니”로 되어 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곳은 누가복음 17장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

실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한밤 중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은 예수님이 뱃돌을 가는 동안에 오신다고 한다. 뱃돌은 언제 가는가?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낮에 뱃돌을 갈게 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서는 밤에 오신다고 하셨다가 금방 다시 낮에 오신다고 하신 것일까? 이 말의 뜻은 밤과 낮이 이 지구 위에 동시에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동시에 밤과 낮이 있을 수 있는가?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구가 평평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 밤이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잠인 것이고 낮에 오시면 온 세상이 다 낮인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쪽이 낮일 때 그 반대쪽은 언제나 밤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계 1:3).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하비	곽옥연	김경숙	김기현	김태희·김문주	김동우	김민준	김성도	김성진·전미혜	김소연·신호정	김순례	김예원	김은미
	김은성	김은중	김정자	김준영	김호민·도영희	박문웅	박선우	박순옥	박영혜	박옥순	박종필	박홍구	방미숙
	안미화	설경원	신상영	신윤자	신일규	신일원·신완식	심정훈	안창용	오양숙	오준영	오창현	위미화	위선영
	이석호	이은진	이수경	이윤하	이장우·김차연	이진우	황은숙	이향희	임혜원	장예진	정원수	정필환	조신래
	차동훈	최강민	최우영	최은영	하대은·박선희	한정환	황인성	무명4명					
감 사 헌 금	법사	강대환·김명선	강도현	권미나	김경란	김동의	김동일·신영희	김서영	김성진	김순례	김순희	김예원	김옥려
		홍경숙	김장자	김태영	김현미	나대연	도영희·유대현	박문웅	김희숙	박성인·이영애	박승기	박영혜	박의찬
		서주영	서지환	설경화	손동부·배성애	신민경	신윤자	신일원	심태동·김경희	안봉진	안해용	염경복	오광택
		윤은열	이병돈·이희숙	이순자	이승희	이산일	이실근	이영숙	이예진	이태순	이현지·김원한	장유식·채승호	전미혜
		정예진	정준창	조민정	조수우	조수자·최용호	조신래·신상영	조은유	조유은	지승윤	차동훈	최기동·신정인	최민철
		최조용·김순향	한윤근·최옥순	한은정	한정환	한진주	황미란	BBQ동호회	조아리7노인복지센터	무명7명			
	생일	박지근	김한수·노현교	이경숙	수련회	김민식·이상미	수상	배서란	어머니생일	생백미			
	위로	최지옥	응답	최은영	이사	설경원	장례	이상희·김철원	임상근·최영미	휴가	김선휘		

일 천 번 제	권진희	김경란	김경숙	도정희	박은순	오광택·황미란	윤해정	장미희	무명1명				
선 교 헌 금	강금옥	김경옥	김규장·김상미	김립숙	김미자	김미희	김민서	김민자	김서영	김성진·전미혜	김순례	김예란	김영곤
	김영희	김원근·이은미	김종영	김진란	김창환	김태연	도영희	류영훈·백은진	박성자	박영혜	박정호	박종휘	손은혜
	신윤자	심지현	신태필	안해용	위선영	유대중	윤귀옥	이강민	이규철	이민영	이성동	이시형	이영희
	이정옥	이종환	이현숙	이현지	이혜련	임혜원	장유식	정요한	조신래·신상영	차민서	최광봉	최우영	최재국
	최진소	한은정	한지순	한정환	한창희	하영실	다문화예배부						
맥추감사헌금	강하비	곽옥연	김서란	김선호	김성진·전미혜	남기섭	박경옥	박상호	박혁석	배미정·박승우	배정민	서환표	신애은
	신일원	유준미	이광식	이상급	이주락·권민자	이지윤	임혜원	조한희·이준희	최지훈	홍영심	황선영		

국내 지원교회 현황

가상교회 이준권 목사
군선교회 김경숙 간사
공유교회 김성수 목사
길부교회 최침식 목사
깊은샘교회 최태훈 목사
관호교회 박창기 목사
꿈이든교회 하승수 목사
낙산교회 김성근 목사
냉수한그릇 선교회 김동준 목사
대구교통문화선교회 박영찬 목사
대구지방경찰청경목실 조석원 목사
대구학원복음화협의회 임호근 목사
대신대학교 최대해총장
드림교회 장지현 목사
말씀으로교회 이영주 목사
문경새교회 조창우 목사
반석교회 윤정문 목사
보배로운교회 김태영 목사
봉곡교회 김갑식 목사
봉산교회 김경태 목사

봉춘교회 조규현 목사
뽕애틀선교회 조강성 목사
샘물샘교회 윤희달 목사
서넉도교회 박송덕 목사
성주인촌교회 이돈규 목사
승리하는교회 한병열 목사
송산교회 최판동 목사
새생명교회 박숙자 전도사
아름다운교회 서기성 목사
아름다운교회 홍상근 목사
어수교회 이현중 목사
열린교회 이경동 목사
예수사랑교회 김은수 목사
은목교회 김성우 목사
은혜샘교회 김진완 목사
이수교회 최창욱 목사
전흥교회 최준희 목사
주사랑교회 김점용 목사
주소망교회 오준석 목사
중남교회 이만형 목사

지소제일교회 박노열 목사
진동동행교회 장성 목사
진사교회(소망의집) 김한곤 목사
청송화정교회 최두희 목사
칠곡남부교회 이우석 목사
칠곡호국교회 김형국 목사
토기장이교회 이상길 목사
평안교회 김충섭 목사
푸른동산교회 김성환 목사
풀어주는교회 윤치성 목사
하늘선민교회 김진욱 목사
하늘소망교회 안윤칠 목사
하늘함기교회 이정훈 목사
함양온산교회 서보성 목사
한국침선교회 최충민 목사
형통한교회 양은식 전도사
형통한교회 강선도 목사
홀사모선교회(새행로교회) 이예스터 목사



일반헌금 | 농협 355-0505-0505-53 / 예금주 대동교회

선교헌금 | 하나은행 192-890033-62004 / 예금주 대동교회

*주일설교 내용을 공란에 메모하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 · 2 · 3부예배 | 말씀이 이끄는 삶 / 렘 1:4-10(구1049)

말씀이 임하다 (렘 1:4)

어린 예레미야 (렘 1:6)

격려 (렘 1:9)

파괴 (렘 1:10)

건설 (렘 1:10)

회개 (렘 4:3)

회개의 목적 (눅 8:15)

건축의 재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회사역

담임목사
이동관

부목사
이규철 김성진 김종영 조태화
여저여

여전도사
이향희 방미숙

교육전도사
강정은 박영혜 신윤자 조효정
김은성

장로사역

원로장로
박익찬 오수웅 신경의 최조웅

은퇴장로
박경규 박익석 박문웅 김동해
김동우 김덕수 김광영 오주석
차성도 김대년 최대원 김동의
김효정 박성우 노판석 김윤규
김대환 김중욱 김원식

사무장로
신덕수 심재욱 김동일 김대희
조성재 임상근 정인수 최기동
박상호 박윤희 신일규 최인철
박대익

협동장로
김주영

전임장로
이장우

찬양사역

지휘
할렐루야 |오현택 벤 엘 |조우석
시 온 |정요한 마리아 |권보경

피아노
할렐루야 |김미향B 벤 엘 |오윤진
시 온 |안 나 마리아 |이주영
새벽기도회 |이은영

오르간
할렐루야 |김문주 벤 엘 |강명아
시 온 |조민영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대동교회!

선교부 파송 및 해외선교 현황

감비아	몽골	정현길	태국	K국
선성수	신종호	유정훈	문진세	김요한
나이지리아	미국	구로아나기	김교일	T국
이능성	최승암	전격군인교회(한국)	이목훈	임동진
남아공	미얀마	박호기	송진호	서상협
양현	강대경	카자흐스탄	오성길	
정몽률	베트남	박진대	파라과이	
네팔	이창명	캄보디아	손경수	
윤은호	영국	천준상	필리핀	집계
대만	윤하민	윤성욱	박재형	파송: 4
김대우	이집트	케냐	김영권	협력: 47
라오스	조은 조	이종도	박호동	
김종훈	양형권	타지키스탄	남창수	
러시아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국내)	한용식	
한성훈	나그네	엄은식	박재영	
김인규	이석기	장일영	주경배	
모로코	노수정	탄자니아	A국	
박두례	일본	김태현	이명일	
저스틴김	민수식		하성	

집회 안내

새벽기도회	05:00
주일예배 1부	08:00
2부	09:30
3부	11:30
청년부	13:30
주일찬양예배	14:30
다문화예배	11:30
수요예배	19:00
금요하늘문기도회	20:00

주일학교

영아부	10:00
유치부	09:30
유년부	09:30
초등부	09:30
중등부	09:30
고등부	09:30
청년부	13:30
장년부	13:20
여호수아청년부	13:30

찾아오시는 길

